만남

2017 8월
통권 151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 목 차 ❖

신부님 칼럼	+ 나의 휴가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감사의 송가	4
교리	신앙의 재발견 7~9	8
기도 소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11
영적 상담		12
나눔		14
공동체 소식		16
지방 공동체 소식		20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23
미사안내		24

《교황님의 8월 기도지향》

❖ **일반 : 예술가들**

우리 시대의 예술가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모든 이가 창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기도합시다.



나의 휴가

많은 분들이 7월이나 8월에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학업 또는 근무를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사실 저는 휴가를 그다지 이용하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름에는 움직이는 일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굳이 여름이 아니더라도 땀을 흘리는 체질이어서 그런지 여름에는 그야말로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악몽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여름에는 어디로 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에어컨만 꼭 껴안고 지낸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다른 계절에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때가 아닌, 다른 때에 간다는 사실이 조금은 어색하더군요. 두 번째,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세상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는 셈이지요. 세 번째, 휴가란 지친 몸과 마음에 여유를 주고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매일매일을 휴가처럼 지내고 있으니 굳이 그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휴가를 떠나는 많은 분들을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것이 바로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쉬셨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휴가나 휴식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영양소 같은 것입니다. 잘 쉬고, 재충전을 잘 해야만 삶이라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니까요.

쉴 새 없이 바쁘셨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마르 6,31)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만큼 쉬는 일은 중요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계신지요? 무엇보다 신앙인들에게는 예수님과 더불어 쉬는 일이 더 더욱 소중합니다.

감사의 송가(시편 65,2-6)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8번 "주께 감사드리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일상 안에서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게 하소서.
- 사랑이신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시편 65편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65, 2 하느님, 시온에서 당신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당신께 서원이 채워집니다,
3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 당신께.
당신께로 모든 사람이 모여 오니
4 죄악 때문입니다.
저희의 죄가 저희에게는 너무나 무겁지만
당신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5 행복합니다,
당신께서 뽑아 가까이 오도록 하신 이!
그는 당신의 뜰 안에 머물리이다.
저희도 당신 집의 좋은 것을,
거룩한 당신 궁전의 좋은 것을 누리리이다.

6 저희 구원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정의의 놀라운 행적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십니다.
당신은 세상 모든 끝과
머나먼 바다의 희망이십니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누군가로부터 용서 받은 은혜로움을 나누어봅시다.
☞ 자신의 잘못을 하느님께서 용서해주셨다고 느낀 적이 있으면 나누어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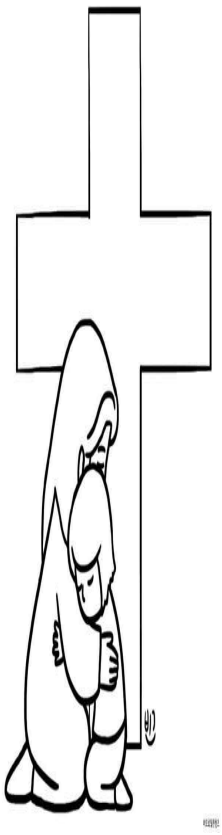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길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고 있는지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어둡고, 외롭고, 어려운 길도
그렇게 참고 잘 왔다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불평과 불만에 찬 걸음은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선물인 희망도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할 만한 순간에 하느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잘못된 불평과 불만의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를 따라가다 보면 평온한 인생이 됩니다.

바쁜 것 조금 내려놓고, 내 옆의 사랑하는 사람 손도 잡고 산책도 하고 밥도 먹어 보고 같이 놀아도 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축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갑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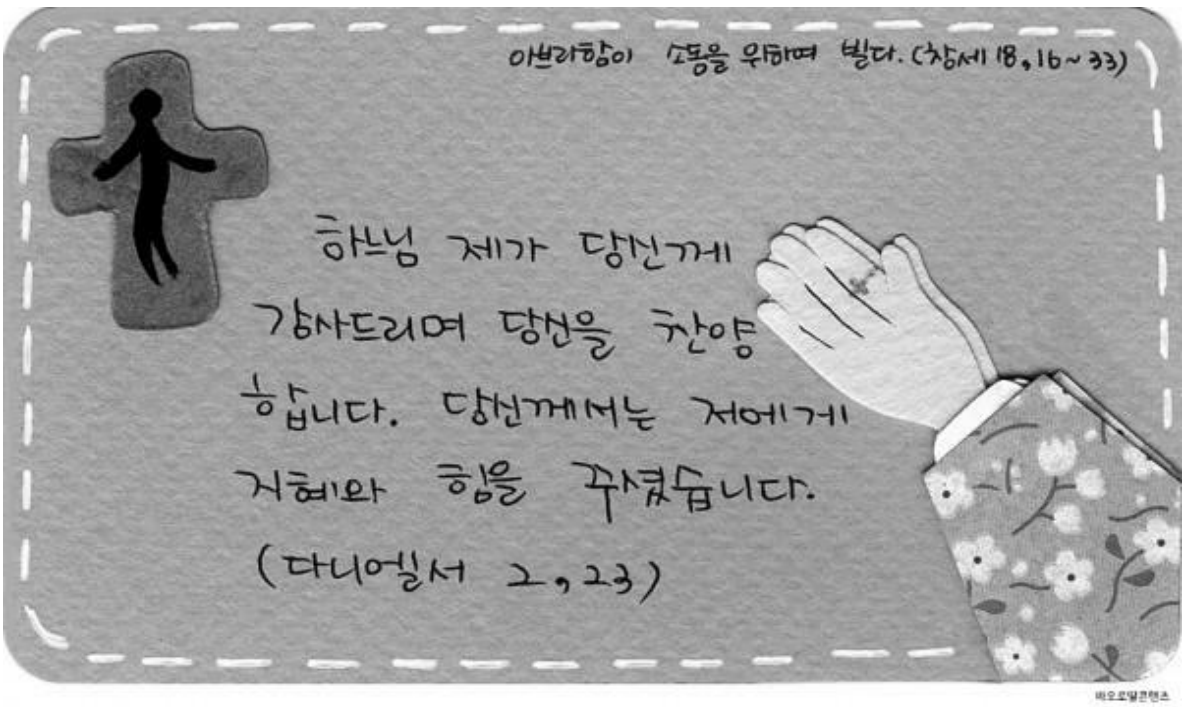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8번 “주께 감사드리자.” 2,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7.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은 마침내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다양한 칭호들을 통해 예수님 안에 계시된 신비를 알아봅니다.

예수 :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전해 준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의 신원과 사명을 동시에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마태 1,21) 분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사도 4,12)

그리스도 : '그리스도'는 히브리말 '메시아'를 그리스말로 번역한 것인데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사도 10,38)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지닌 고귀한 소명을 나타냅니다.

하느님의 아들 :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확실히 밝히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과 온전히 같은 본성을 지니신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시며 또한 하느님 자신이십니다.

주님 : '주님'은 하느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나 그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느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요한 13,13)

하느님의 어린양 :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생활에서 해방될 때 어린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릴 사명을 받은 세례자 요한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요한 1,29)이라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의 아들 :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참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임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 :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일치하시며 그분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곧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느님의 말씀이며 예수님께 해당되는 것은 하느님께도 해당 되는 것입니다.

8.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 생활에서부터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 사랑과 자비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느님 나라가 당신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삶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도록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됨으로써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셨고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때문에 억압받고 핍박받는 이들 또한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짐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는 바로 하느님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하여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소경이나 나병환자, 세리 등을 가까이 부르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대화를 나누시고 기꺼이 식사도 하셨는데 이것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하느님 나라의 평화로운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셨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일에 협력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며 세상이 악에 물들어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어둠을 밝혀주는 빛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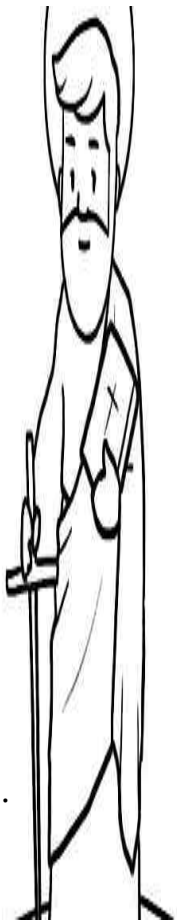
9.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 성령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을 어떤 형태로든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손길은 신비스러운 것이기에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1코린 12,3)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갈라 4,6)
이러한 신앙의 인식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보다 앞서 오셔서 우리 안에 신앙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부, 성자와 더불어 같은 하느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 현존을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을 잉태시키시고 그분을 사랑받는 아드님이라고 증언하며 그분을 이끌고 죽을 때까지 그분을 움직이게 했던 존재는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다양한 이름과 표징으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비둘기(평화나 복구의 상징)의 형상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셨습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성령을 상처를 낫게 하는 연고나 물(새로운 탄생을 나타내는 유효한 성사적 표징), 휘몰아치는 폭풍(성령의 역동성), 타오르는 불꽃(변화시키는 성령의 힘)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호자(파라클리토, Paracletos)요 위로자, 교사,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베푸는 성사에서 신자들은 안수와 기름부음(1요한 2,20,27 참조)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났을 때 하늘로부터 당신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 보내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은 성령이 내렸을 때 믿음 속에서 깊은 확신과 기쁨을 느꼈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닌 선교의 사명을 일깨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교회의 직무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재능을 주십니다. 교회와 더불어 교회에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도록 은총의 선물을 주십니다.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여유가 없을지라도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자신의 일에 취하여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세상이라는 벽에 자신을 걸어놓고
불안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수많은 일들로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에도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멀어졌던 발걸음을 내디뎌 한 걸음씩 더 다가가게 하소서.
막연한 이해를 바라기보다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하여
건강한 사랑을 만들게 하소서.
서로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소외가
얼마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알게 하소서.
삶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절망이 보이니
서로의 만남을 감사하게 하소서.
삶의 세세한 생활들을 주고받음으로
서로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감의 중요함을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지니고 사랑의 통로를 만들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늘 건강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이 힘 있고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소서.



질문

저는 50대 중반의 기혼 남성입니다. 구교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엄한 아버지께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성당에 가지 않으면 밥도 먹지 못했을 정도고 친구들과 다투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벌하셔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저의 신앙은 어느덧 자녀들에게도 비슷하게 전달되면서 가끔씩은 자녀들과 충돌이 생기곤 합니다. 사실 저도 성당에 가면 기쁘고 행복하기보다는 의무로 느끼는 경우가 많으면서도 자녀들에게는 더 엄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답변 - 김인호 신부(대전가톨릭대 • 서울가톨릭대 영성심리상담교육원 교수)

어떤 추기경님의 일화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밖에 일을 보러 나가실 때면 어린 자녀에게 엄하게 이르셨답니다. "사탕에 손대지 마라. 하느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아이는 엄마가 안 계셔도 하느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무서워 결코 사탕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모습을 새롭게 알게 되었답니다. 하느님은 사탕 바구니 앞을 서성이는 아이에게 "두 개 가지고 가거라!"하고 말씀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들 각자에게 내려져 다양한 신앙생활의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여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가 유아기 때 부모와의 관계나 교육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사실 굳이 유아시절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부모, 교사, 사제, 수도자, 대부모 등과 같이 주변의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형성된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나 앎이 실제 하느님의 모습과는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 전해주신 분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보다 진정한 하느님을 아는 것에 노력과 책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형제님의 경우도 위에서 소개해 드린 추기경님의 경우처럼 부모님께로부터 '징벌의 하느님'을 배우게 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엄한' 분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면 신앙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엄격함을 지니신 분이셨으리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형제님께 그런 신앙을 소개하신 아버님의 신앙교육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형제님에게서 긍정적인 차원을 찾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이 형성되셨다는 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앙 선배들은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을 '구원의 시작'으로 보면서 신앙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두려움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없애려 하는 경우입니다. 하느님, 천당 지옥, 영혼 등과 같은 영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두려움이 과도한 경우입니다. 때로는 신앙이 과도한 두려움을 조장하여 신앙생활을 '무엇을 해야 하는 것' 정도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형제님께서는 지금 신앙의 여정 안에서 중요한 과도기를 지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형제님께서는 우선 성경공부나 재교육, 영적독서 등을 통해 하느님에 대해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지닐 수 있는 기회를 지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신앙의 지평이 '규칙준수'에서 '사랑의 차원'으로 옮아가도록 가족과 함께 자선을 행하고 가족 여행을 통해 좀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권진원 라우렌시오 신부님)

주변의 모습을 바꿈으로 해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과 가구의 배치를 새로 하거나 물건들의 위치를 변경, 정리하면서 기분전환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도 며칠 전 장마로 인해 비가 계속 내리던 차에 다운된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을 요량으로 책꽂이의 책들을 정리했습니다. 빛바래고 손때를 탄 오래된 책들 사이에서 추억이 서린 노트 한 권을 발견하였습니다.

20여 년 전 가톨릭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을 입학하여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1학년 때 쓴 성경 묵상 노트였습니다.

거의 15년 만에 펼쳐본 노트의 글들은 저에게는 정말 뜻밖의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유치찬란한 글들을 보면서 부끄러움에 얼굴 낯빛이 불어졌습니다. 때론 소리 내어 웃어볼 만한 재미난 표현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를 읽어 내려가며 '내가 저런 때가 있었구나? 참 저 시절에는 착하고 순수했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어리게 보이기도 하도 또 어떤 면에서 맑고 깨끗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지금의 저와 비교를 하니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에도 저리도 큰 감동을 느끼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였는지 현재의 저와는 다른 사람인 듯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까 이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늘 모자라다 느끼고 어찌하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순수청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를 보면 신자 수를 늘리는 일, 성당의 건축과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정리하는 일, 어떻게 하면 봉헌금을 늘리고, 사람들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등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듯 해보입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는 일, 고통 받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위로하며 공감하는 일, 병자를 방문하여 기도하는 일 등등에는 어쩌면 우선권이 밀려있는 것 같습니다.

❖ 나 눔 ❖

20년 전 저의 노트를 읽었을 때의 그 순수청년은 분명히 후자의 일에 더 몰두하고 노력했을 법한데 20년 후의 그를 보면 과거의 청년은 온데간데없고 앞머리는 빠지고 흰머리가 늘어가는 고집쟁이 중년 한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이라는 풍파에 치이고 모가 나서 저렇다고 말한다면 어지간히 낯짝 또한 두꺼워진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마음 한 켠 저 깊숙이 숨겨둔 과거의 저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려 합니다. 지금의 내가 순수청년을 보며 유치하다 말해도 그 청년은 다름 아닌 저이기에 왜 이리 마음이 변했느냐고 물으면 변하지 않고 숨겨두었을 뿐이라고 헛웃음 치며 반갑게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며 어떤 일과 난관에도 그 열정과 기세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말하던 젊은 청년을 불러보려 합니다.

이제 숨어 있지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당당한 저로서 그 순수청년의 마음을 되돌려 살아보려 합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추억으로만 떠올리는 젊은 날의 순수청년이 아직도 우리 안에 여전히 숨 쉬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가 봅시다.



❖ 8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리 디 아 (St. Lydia)	손 수 민
8일	도미니코 (St. Dominic)	김 대 현 김 치 수 배 성 우
	도미니카 (St. Dominica)	심(김)선옥
10일	라우렌시오 (St. Lawrence)	우 동 천 엄 현 석
11일	수 산 나	노 정 자 서 수 진
15일	마 리 아 (St. Maria)	정 마리아 김 춘 옥
18일	클라우디아 (St. Claudia)	김(이)영희 이 지 연
18일	헬 레 나 (St. Helen)	현(김)영애 이 미 용 백(이)영자 윤 혜 진
23일	로 사 (St. Rose)	최 종 금 이 중 지
	필 립	해준 Heifler
24일	바르톨로메오 (St. Bartholomew)	남궁춘배
27일	모 니 카	손 수 희 윤 예 진
28일	아우구스티노	이 석 우 이 철 우 김 민 수

❖ 8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마 리 아	김일자(B) 황치숙(B)
10일	테 레 사	고희지(B)
11일	수 산 나	강민정(B)
15일	마리스텔라	정은찬(H)
	스 텔 라 마리 스텔라	부지우(O) 강주희(H) 김세담(H)
	메 리	Albrecht(O)
18일	글 라 라	전영웅(H)
	헬 레 나 (St. Helen)	박선자(H) 설윤자(O)
22일	셀 리 나	김신자(H) 김세린(H)
23일	로 사 (St. Rose)	정지연(H) 최 랑(O) 백일순(H)
27일	모 니 카	임소영(O)
28일	아우구스티누스	서선영(B) 고찬연(B)

❖ 8월 성가번호

8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6일	72	216	176	31
13일	1	512	154	2
15일	259	210	163	255
20일	480	340	172	6
27일	가 족 미 사			

❖ 8월 미사 전례 봉사자 ❖

8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6일	이경규(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이현묵(요셉) 최장용(레오)	4구역
13일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김치수(도밍고) 이영희(클라우디아)	주일학교	청년회
20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이정훈(요나스)	권지연(안드레아) 방조영자(젬마)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진호(프란치스코)	요셉 마리아회
27일	가 족 미 사			1구역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6월 25일	7월 2일	7월 9일	7월 16일
계(€)	242.36	239.44	184.60	246.65
자진헌납금	60.00	270.00	50.00	460.00
구좌입금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610.00 * 헌납금 총 합계 1,450.00			

❖ 자진헌납금 ❖

2017년 6월 25일 ㅡ 2017년 7월 16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현금납부 :

심동근, 채규순, 한선지, 윤예진, 한규호, 이종하, 이정은,
서세원, 최순남, 최승진, 손수희, 김계희, 최장용, 강신행,
강순행, 이기열, 이경규, 이현묵, 이중지, 이공종, 이석우,
이정수, 이수웅, 김용일, 김건, 김경미, 김형웅, 현영애,
우동천, 육종인, 진윤희, 배성우, 문경희, 박성아, 김민수
김유석, 방조영자

구좌입금 :

김동수, 김원자, 정숙 Eilinghoff, 최성자, 이영원, 허채열, 김부남,
최화영, 백정선, 홍경영, 허두욱, 서유미, 이명원, 이성원,
이상봉, 이정훈, 박준병, 김치수, 김수혜, 김진호, 김대현,
강일남, 최현봉, 남궁춘배, 허길조, 영희 Eggerstedt,
옥수 Ranitzsch, 권지연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예비자 교리반은 8월 6일 일요일 오후 1시에 예수 성심 성당에서 있습니다. 예비신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신자분들도 초대합니다.

2. 8월 7일 월요일부터 8월 11일 금요일까지 본당신부님은 재 유럽 마산교구 사제•신학생 모임과 휴가를 위해 Umag으로 떠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평일미사가 없습니다. 평일미사 참례는 인근의 독일성당에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8월 11일(금)부터 8월 14일(월)까지는 유럽 청년성서모임에서 주관하는 청년들을 위한 창세기 연수에 서유미(레지나), 이정훈(요나스), 노하빈(휘데스), 세 명이 연수에 참여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 미사는 19시에 만남성당 강당에서 봉헌합니다. 한국 신자들에게는 의무대축일입니다.

5. 배구연습을 위해서 음식 봉사를 해 주시는 각 구역 봉사자님들의 수고와 노력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 8월 중, 가정방문과 가정축복은 8월 14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표에 이름과 세례명을 적어주시면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7. 8월 26일 토요일 9시부터 제44차 함부르크 한인 친선 배구대회가 함부르크 시립공원(Hamburger Stadtpark)에서 있습니다. 행사에 대해서는 대회장님이신 배성우(도미니코) 형제님에게 문의를 해주십시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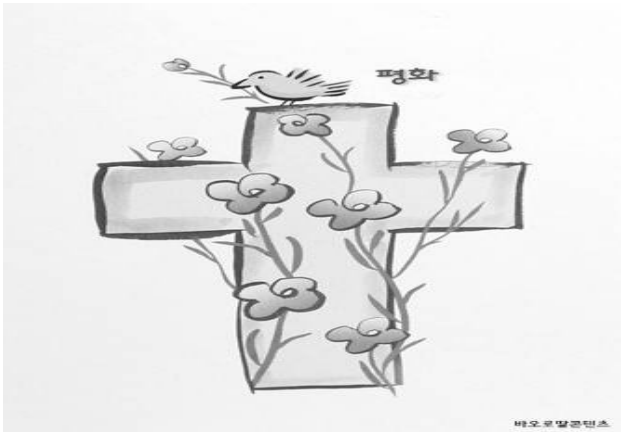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7월 정기미사는 7월 8일(토), 허윤선(아가다) 자매님 가정에서 연중 제14주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이웃 마을에 살고 계시는 안경림 자매님이 처음으로 이 미사에 참례하셨습니다.
2. 7월 소공동체 기도모임은 22일 17시에 설윤자(헬레나) 자매님 가정에서 개최했습니다.
3. 최랑(로사) 자매님이 8월 1일 Bad Iburg에서 본당신부님의 주례로 혼인 성사를 받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사목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영숙 데레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역장모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각 구역장	각 구역장 참조
주일학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감	최영자 파울라	040/ 3865 3332
연령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 장	김진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비자교리		매월 첫째 주일미사 전 13시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대리 - 본당회장
레지오 마리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이순자 마리아	040/ 4109 1742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순자 마리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현영애 헬레나	040/ 5480 1592 0176 6262 7429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성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매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정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채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영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이현묵 요 셉		6011594
			총 무	이경규 안스카		6045311
		4구역	구역장	문경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정경숙 안 나		6729549
청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서유미 레지나		0171 867 2858
			부회장	이정훈 요나스		0176 4345 2337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회 장	심은희 안 나		0157 8045 2206

8 월 중 행 사 예 정 표

일	요일	전 례 일	단체 행사	비 고
1	화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주교 학자		
2	수			
3	목		꾸리아	
4	금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사목협의회	
5	토			브레멘 공동체
6	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연중 제18주일)		
7	월	입추		미사가 없습니다
8	화	성 도미니코 사제		
9	수			
10	목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		
11	금	성녀 클라라 동정 말복	청년 창세기연수(월요일까지)	
12	토			오스나브뤽 공동체
13	일	연중 제19주일	청년 소공동체	
14	월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15	화	성모 승천 대축일, 광복절	대축일 미사, 19:00 강당	의무축일
16	수			
17	목			
18	금			
19	토			하노버 공동체
20	일	연중 제20주일		
21	월	성 비오 10세 교황		
22	화	동정 마리아 모후		
23	수	처서		
24	목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연령회	
25	금			
26	토		제44회 배구대회	
27	일	연중 제21주일	가족 미사	
28	월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 학자		
29	화	성 요한 세례자의 수난		
30	수		유럽 성령 기도회	
31	목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최 영 숙 데 레 사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보 만 남 ❖

발 행 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편 집 인	남궁춘배 바르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51 2341 2732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